



흥아해운, 이준우 부사장 승진



흥아해운은 1월 이사회를 열고 이준우 전무를 부사장으로 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준우 부사장은 1970년생으로 흥아

해운 최대주인 이내건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에서 MBA를 밟았고 이후 이토추상사, 보스턴컨설팅그룹, AIG인베스트먼트에서 경력을 쌓았다.

흥아로지스틱스 사장에는 엄상훈 전무, 진인해운 사장에는 한영락 이사, 한로해운 부사장은 오흠 이사가 맡는다. 김인환 전무(부산사무소), 홍성은 이사(전산), 홍재선 이사(기획)는 퇴임했다. 이환구 부사장은 상임고문직을 맡는다. 흥아해운의 대표는 구랍 31일자로 박석목 공동대표가 사임하면서 이운재 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팬스타그룹, 김상균 상무 등 승진인사

팬스타그룹이 1월 1일부로 김상균 상무 등 7명에 대한 승진 및 보직발령의 인사를 단행했다.

△그룹총괄 경영기획실장

김상균(이사→상무이사)

△글로벌화물영업부문 드림팀

담당 임원 김영섭(부장→이사 대우)

△글로벌화물영업부문

전략영업팀장 진태성(차장→담당)

△글로벌화물영업부문

글로벌링크팀(서울) 팀장 정운영(과장)

△글로벌화물영업부문

글로벌링크팀(부산) 팀장 장해경(과장)

△글로벌화물영업부문

글로벌링크팀(서울) 한주호(대리)

△글로벌화물영업부문

전략영업팀 정진호(대리)

해양수산연수원 원장에 이동재 전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수산부는 1월 2일자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 이동재 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임명했다.

이동재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및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과 국고과장,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공직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예산, 해운 및 수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기관장으로서의 경영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국제수로기구(IHO) 활동 등을 통해 국제적 업무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국내외 해양수산분야 환경변화에 따른 해기인력 양성 및 안정적인 조직 관리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수원이 세계적인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에 김용태 서기관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기획과장에 김용태 서기관을 임명하는 등 1월 4일자로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제협력총괄과장 김현태 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소득복지과장 변혜중 前)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최종욱 前)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김용태 前) 연안해운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전우진 前) 해양수산부

목포해양청장에 장귀표씨 등 과장급 전보인사

해양수산부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 장귀표 서기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과장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장귀표 前) 수산정책과 (1월 25일자)

△혁신행정담당관 박영호 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규섭 前)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장

△수출가공진흥과장 김남웅 前)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양식산업과장 이상길 前) 혁신행정담당관 (이하 1월 28일자)

SM그룹, 대한해운 김철봉 부회장 등 승진인사



SM그룹은 2019년 1월 1일자로 부회장 1명, 부사장 2명, 전무 2명, 상무 3명, 이사 7명, 이사대우 15명 등 임원 30명과 부장 승진자 3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SM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계열사의 책임경영을 통한 내실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강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임원 및 부장 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승진인사>

◇부회장

△대한해운 김철봉

◇이사

△대한해운 우준욱, 배연성△SM상선 이윤재△KLCSM 구자운

◇이사대우

대한해운 우기채△SM상선 신현섭, 최광국, 문상필△대한상선 조해진

◇부장

△SM상선 김형태, 강무성, 김기업, 김성현, 김세철, 신우철, 안진우
△대한상선 양철호△KLCSM 서광택, 임양현

SM상선 신임 대표이사 박기훈 부사장 선임



SM상선은 1월 22일 신임 대표이사로 박기훈 부사장을 선임했다.

박기훈 신임 대표이사는 성균관대학교와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경제학 석사를 졸업한 뒤 1991년 현대상선에 입사한 이후 구주지역 본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컨테이너 사업에 몸담은 물류 전문가다.

SM그룹 관계자는 “내실을 강화하고 강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라고 밝혔다. 박기훈 신임 대표이사는 “영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기훈 대표이사 약력>

△1962년생 △성균관 대학교 경제학사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경제학석사 △1991-2015 현대상선 재직 △2013-2014 현대상선 독일법인장 △2014 현대상선 구주본부장 △2017-2018 현대유타일(주) 영업 및 운영담당 임원 △2018 동부익스프레스 국제물류사업본부장 △2019.01~현재 SM상선 대표이사 부사장

고려해운, 최호연 부장 등 직원 31명 승진인사

고려해운은 2019년 1월 1일자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차장 → 부장 : 최호연(인도네시아 사무소), 김세일(해외영업부 BSA 운영팀), 유용재(해외영업부 해외영업팀), 김서영(청도분공사), 김홍렬(경영관리부 고객센터팀)

△과장 → 차장 : 김대수(대련사무소), 강문호(영업전략부 기기관리팀), 임정근(광저우분공사), 오승욱(닝보분공사), 박성오(필리핀법인), 이규동(영업전략부 기기관리팀), 임강혁(경영관리부 글로벌경영지원팀)

△대리 → 과장 : 우종성(컨테이너 영업부 수입영업팀), 김태현(해외영업부 BSA운영팀), 안병제(컨테이너 영업부 수출영업팀), 박준규(컨테이너 영업부 수입영업팀), 조운선(영업전략부 기기관리팀), 박운재(경영관리부 글로벌경영지원팀)

△계장 → 대리 : 이녹(경영관리부 업무심사팀) 외 6명

△사원 → 계장 : 이정애(경영관리부 고객센터팀) 외 5명



세방(주) 최종일 신임 대표이사 임명

종합물류기업 세방(주)의 신임 대표이사에 최종일 상무가 임명됐다.

협운해운, 김영신 차장 등 승진인사 단행

협운해운그룹이 1월 1일자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과장→차장

김영신(윌헬름스협운 부정기선부)

△과장대리→과장

최인철(협운해운 울산사무소)

우강석(신한상운 운송부)



대한상선 신입 대표이사에 윤흥근 부사장 선임

대한상선은 신입 대표이사로 윤흥근 부사장을 선임했다.

윤흥근 신입 대표이사는 1964년생으로 배문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영국 시티대 Cass Business School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윤 대표이사는 SK해운에서 벌크선 영업팀장, 런던 법인장 등을 역임하며 30여년간 벌크선 사업에 몸담은 벌크선 영업 전문가다. SM그룹 관계자는 "벌크선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라고 밝혔다. 윤흥근 신입 대표이사는 "선대 증강과 역량 집중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전문 선사로 만들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테크로스, 박석원 신입 대표이사 선임



글로벌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제조업체인 (주)테크로스는 1월 1일부로 박석원 상임고문을 신입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박석원 대표이사는 LG전자에서 36년의 재임기간 동안 유럽*북미지역 지역대표 겸 법인장을 거쳐 글로벌 영업마케팅부문 부부장, 해외영업본부 본부장 및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괄목할만한 성장과 변화의 시기가 될 2019년에 테크로스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은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USCG 승인과 검증 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직원들과 함께 글로벌 넘버원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회사로 포지셔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주협회, 정태순 회장 추대

한국선주협회는 1월 10일 2019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을 신입 회장에 추대했다.



해상로펌 세경, 박성원·신진호 변호사 신규 공동대표 선임 "신세대 변호사의 전면부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추구"



△박성원 변호사

△신진호 변호사

해상전문로펌 법무법인 세경은 1월 2일자로 파트너 박성원 변호사(연수원 28기) 및 신진호 변호사(연수원 34기)를 공동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997년 공동설립자 최종현 변호사와 김창준 변호사(각 연수원 11기)에 의해 출범한 법무법인 세경은 2인 대표 체제에서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다.

박성원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 세경에 입사하여 영국 런던의 King's College에서 LLM과정을 이수한 바 있고, 신진호 변호사는 2008년 세경에 최초 입사하여 최근 영국의 Swansea University에서 LLM 과정을 이수하는 등 두 변호사 모두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중견변호사들이다.

박성원 변호사와 신진호 변호사의 공동 대표변호사 취임은 세경에 젊은 공동대표들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불어넣어 세경의 지속적인 성장에 든든한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해운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경의 최종현 대표변호사는 "이번 공동대표 추가선임은 세대교체 전 초작업으로서의 의미도 있다"면서 "젊고 역동적인 신규 대표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해상 및 보험업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경은 1997년 1월 각자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당시 한미)의 해상부 파트너로서 명성을 얻고 있던 최종현, 김창준 두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해상전문로펌으로서 한국 부티크로펌의 효시로 통한다.

The Legal 500, Chambers & Partners 등 해외 전문매체에서 2000년 이래 현재까지 19년간 연속적으로 'Tier 1'으로 선정되는 등(법무법인 세경 유일) 국내 해상분야 leading law firm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박안기공, 경영본부장에 박창수 상임이사 발령



△박창수

△모승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경영본부장에 박창수 상임이사를, 검사본부장에 모승호 상임이사를 발령하는 등 새해 첫 인사발령을 1월 2일 시행했다.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박창수(朴昌洙) △검사본부장 상임이사 모승호(牟承浩)
 △검사기준실장 전종태 △기술사업실장 김원래 △감사실장 최한규
 △인천지부장 홍춘선 △완도지부장 최길석 △경북지부장 백철호
 △사천지부장 강병욱 △전북지부운항관리센터장 임상호
 △여수지부운항관리센터장 김주성 △경북지부운항관리센터장 김종석

검수검정협회, 유영운 신임 회장 선출

한국검수검정협회는 2019년 정기총회에서 내소날검정 유영운 사장을 제 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우조선해양, 임원인사 단행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실적 개선과 업황 회복에 따라 지속성장을 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세대교체와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한 2018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구랍 28일 최용석 전무 등 전무 승진 3명, 서준룡 상무 등 상무 승진 11명, 총 14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하며 지속성장 가능한 회사를 위한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배경으로는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회사를 만들고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또한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략적 우수한 인재를 발탁했다. 이번 임원인사를 바탕으로 2019년 조직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승진인사〉

△전무 (3명) : 최용석, 정대성, 박형근

△상무(11명) : 서준룡, 이상엽, 최원석, 장경희, 한명수, 류정무, 강성운, 김남수, 박종일, 김현술, 장동남

코트라, 신임 부사장에

김종춘 임명

KOTRA(코트라)가 김종춘 부사장 겸 경영지원본부장과 김상묵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을 임명했다



김종춘 신임 부사장은 1988년 코트라에 입사해 리스본무역관장, 경영혁신팀장, 부다페스트무역관장, 홍보실장, 워싱턴무역관장, 북미지역본부장 겸 뉴욕무역관장을 거쳐 주력산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한 김 부사장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지역연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 부서장급 보임자 35% 교체 선정

대우조선해양은 1월 14일 169명의 부서장급 보임자중 59명을 신규선임 및 순환시키는 대규모 부서장급 보임인사를 단행했다.

59명 중 43명이 신임 부서장으로 선임 되었고, 16명의 부서장이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되었다. 전체 부서장급 보임자의 35%가 이번에 교체 또는 변경된 것이다.

이는 장기간 보임에 따라 조직의 활력과 직원들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기존 부서장에 대한 360도 다면평가를 통해 평가가 저조한 보임자도 이번에 교체대상이 됐다.

회사는 기존 하향식으로만 이루어 지던 보임자 선정 관행을 파괴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별도의 전사혁신추진 TFT를 구성해 직원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실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